



넓어진 승격의 문 희망도 더 커진다

2022년 달라지는 K리그

승강팀 수 '1+2' 확대
1부 12개·2부 11개팀 운영
K리그2 팀당 40경기 소화
최대 5명까지 교체 투입도

‘월드컵의 해’ 2022년을 맞아 역대 가장 이른 개막이 예상되는 프로축구 K리그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적지 않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2시즌부터 K리그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와 규정들을 정리해 4일 소개했다.

우선, 승강팀 수가 기존의 ‘1+1’에서 이번 시즌부터 ‘1+2’로 늘어난다.

K리그1(1부) 12위 팀과 K리그2(2부) 1위 팀이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것은 기존과 같다.

하지만 승강 플레이오프(PO)를 치르는 팀은 기존 1개 팀에서 올 시즌부터 2개 팀이 된다.

K리그1 11위 팀은 K리그2 2위 팀과 맞붙고, K리그1 10위 팀은 K리그2 3~5위 간 PO 승자와 승강 PO를 치른다.

올 시즌에는 김포FC의 K리그2 합류로 K리그 참가 구단이 23개로 확대된다.

김포FC의 K리그2 참가가 1월 중으로 예정된 총회에서 승인되면 K리그는 1부 12개, 2부 11개 구단으로 운영된다.

K리그2는 기존 10개 팀이 팀당 36경기를 치렀으나 올 시즌부터는 11개 팀이 팀당 40경기를 소화하게 된다.

지난 시즌 K리그1에만 적용됐던 ‘팀당 5명 교체’ 제도는 2022시즌부터 K리그2에도 도입된다.

선수 교체 방식은 K리그1과 같다. 출전선수명단에 22세 이하(U-22) 선수가 선발 1명, 대기 1명 이상 포함되고 대기 U-22 선수가 교체선수로 투입되거나 U-22 선수가 선발로 2명 이상 출장하면 5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U-22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으면 최대 2명까지만 교체가 가능하다.

U-22 선수가 선발로 1명만 출장하고 교체 투입이 없으면 3명까지 선수를 바꿀 수 있다.

교체 횟수는 경기 중에는 3회까지 가능하고 하프타임 교체는 별도로 2018년 도입한 준프로계약 제도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계약 체결 연령이 기존 17세(고2)에서 16세(고1)로 하향된다.

한 구단이 준프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간 인원은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를 통해 각 구단의 유소년 육성 동력이 강화되고 B팀 운영 시 선수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프로 B팀’ 제도가 도입돼 K리그 구단 중 강원FC가 처음으로 B팀을 구성해 K4리그에 참가했다.

올 시즌에는 강원을 비롯해 같은 K리그1 소속의 전북 현대와 대구FC, K리그2 대전하나시티즌까지 총 4개 구단의 B팀이 K4리그에 참가한다.

B팀 운영은 유망한 선수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를 줘 기량 향상을 도모하고 선수단 운영 폭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리그(리저브 리그)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지 2년 만에 재개된다. 다만, B팀 운영 등 각 구단의 상황이 달라 R리그 참가는 구단의 선택에 따르도록 했다. /연합뉴스



광주FC 신인 김진영(왼쪽)과 정호연.

/광주FC 제공

광주FC, 유스 출신 김진영·정호연 콜업

광주FC가 광주 U-18 금호고 출신 김진영(FW·21·선문대)과 정호연(MF·21·단국대)을 콜업했다고 4일 밝혔다.

김진영과 정호연은 금호고 시절인 지난 2016년과 2017년 백운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2연패, 2018년 제73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이끌었다.

김진영(182cm 80kg)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다부진 체격은 물론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드리블, 날카로운 결정력이 장점이다. 2019년 선문대에 진학해 첫 해만에 U리그 7권역 득점왕(7골)을 거머쥐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이후 U리그 왕중왕전과 제57회 통영기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제57회 태백산기 추계대학축구연맹전 등 많은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

어울렸다. 정호연(180cm 73kg)은 넓은 활동 반경과 볼 간수 능력을 갖췄다. 날카로운 패스와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이며 2018 제 73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 대회 우승 당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바 있다. 또 2019년 단국대에서 제55회 태백기 전국추계대학연맹전 준우승, 제155회 태백기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 준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2021 U리그 5권역 우승을 이끌었다.

김진영은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팀에 대한 애착이 크다. 꿈꿔왔던 프로 무대에 입성하게 돼 영광이다”고 밝혔다. 정호연은 “패기 넘치는 신인의 자세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혜원 기자

KBO “내달 초 AG 감독 선임”

선수는 24세 이하 ‘세대교체’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참패를 당했던 야구 대표팀이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대대적인 세대교체에 들어간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4일 “항저우 아시안 게임 야구대표팀은 이달 중 기술위원회 구성해 2월 초순에는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총장은 또 “아시안 게임 대표팀은 지난해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24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이번 대표팀은 젊은 선수 위주로 완전히 세대교체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는 오랜 시간 태극마크를 달았던 고참 선수들 대신 이정후(23·키움), 강백호(22·kt), 원태인(21·삼성), 고우석(23·LG) 등 젊은 선수들이 주축으로 나설 전망이다.

KBO는 지난해 실행위에서 24세 이상 선수 중 와일드카드 3명을 선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러나 류 총장은 “만약 와일드카드를 뽑는다면 리그 최고의 선수만 뽑을 계획”이라며

“이 경우 해당 구단이 큰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활용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KBO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와 상의해 아마추어 선수 일부가 대표팀에 합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표팀을 이끌 감독의 임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차기 감독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만 참가할지, 2023년 3월과 11월로 예정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프리미어12까지 대표팀을 이끌지는 추후 기술위에서 결론지를 전망이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는 감독의 선수 운용 방안과 데이터 전력분석 부재, 일부 선수의 태도 불량 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노메달에 그쳤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서 잇따라 팬들의 비난을 받은 KBO는 큰 부담을 안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지만, 리그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류 총장은 “리그를 계속하기 때문에 선수 선발은 팀당 최대 3명까지 의무적으로 차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선수 육성사업 탄력

18개 종목 선정 4억9천만원 확보 우수반·심화반·기본반 차등 지원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에서 추진 중인 ‘2022년도 공공스포츠클럽 선수 육성 지원사업’에 7개 스포츠클럽 18개 종목이 선정돼 총 4억9,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공공스포츠클럽 선수 육성 지원사업은 엘리트 선수 조기 발굴 및 지역 내 선수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13~2018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됐으

나 기금 사업이 종료된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선수 확보와 대회 출전 등 전문 선수반을 운영하고 클럽을 대상으로 육성 종목별 예산을 지원해 지역 선수 확보와 엘리트 대회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문 선수반은 7개 스포츠클럽에 총 18개 종목이다.

거점스포츠클럽(농구·축구·태권도·유도), 광산남부스포츠클럽(배드민턴·수영·축구), 서구스포츠클럽(바둑·야구·축구), 동구스포츠클럽(배드민턴·축구), 빛고을스포츠클럽(농구·배드민턴·탁구), 송원스포츠클럽

(배드민턴·테니스), 동강스포츠클럽(축구)이 선정됐으며, 이중 서구스포츠클럽 축구와 동강스포츠클럽 축구가 신규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7개 스포츠클럽은 우수반, 심화반, 기본반으로 차등을 두고 올 상반기 1~8월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광야 회장직무대행은 “스포츠클럽을 통해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연계가 강화돼 선진형 스포츠 국가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스포츠클럽의 엘리트 선수 육성으로 우수선수 조기 발굴과 지역 내 선수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임성재(24), 김시우(27), 이경훈(31) 등 한국인 3인방이 하와이에서 2022년 첫 대회에 나선다.

오는 7일(한국시간)부터 나올 동안 미국 하와이 카팔루아 리조트 플랜테이션 골프 코스(파73)에서 개최되는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TOC)는 올해 처음 열리는 PGA투어 대회다.

PGA투어는 지난해 9월 2021-2022 시즌을 시작했지만, 센트리 TOC가 사실상 개막 전이나 다름없다. 최정상급 특급 선수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이른바 ‘가을 시리즈’는 몇 차례 출전에 그치고 이 대회부터 본격적으로 우승 사냥에 나서기 때문이다.

센트리 TOC는 작년 투어 대회 우승자만 나설 수 있다. 출전 선수가 39명에 불과한 이유다.

출전 선수 면면은 화려하다. 세계랭킹 1위 은 램(스페인)과 2위 콜린 모리카와(미국), 작년 페덱스컵 우승자 패트릭 캔틀리(미국),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켄 더 쇼펠레(미국), 장타양 브라이언 디샘보(미국)와 부활한 브룩스 캠퍼(미국), 그리고 저스틴 토머스, 조던 스피스(미국)도 출전한다.

작년 4대 메이저대회 우승자 히데키 마쓰야마(일본), 필 미컬슨(미국), 람, 모리카와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눈길을 끈다.

미컬슨은 21년 만에 이 대회 출전이다. 이런 ‘별들의 전쟁’에 한국인 3명이 출격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임성재는 두 번째, 김시우는 세 번째 출전이고 이경훈은 처음이다.

임성재는 지난해 10월 슈라이어너스 칠드런스 리간 익스프레스 우승으로 출전권을 땀다.

이경훈은 작년 5월 AT&T 바이رن 넬슨에서 PGA투어 첫 우승을 거둬 챔피언들의 파티에 초대장을 받았다.

PGA투어 7일 새해 첫 대회 임성재·김시우·이경훈 출전

세계랭킹 1위 은 램·2위 콜린 모리카 등 참가

처음 출전한 작년 이 대회에서 5위에 오른 임성재는 PGA투어닷컴이 꼽은 우승 후보 순위 9위에 올랐다.

PGA투어닷컴은 작년 첫 출전 해서도 나흘 동안 모두 60대 타수를 기록한 임성재의 정교한 샷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곳에서 2차례(2017년, 2020년) 우승한 토머스와 최근 상승세가 뚜렷한 모리카와, 2019년 우승자 쇼펠레와 세계 1위 램이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해리스 잉글리시(미국)는 2연패에 도전한다.

날찍한 페어웨이에 러프가 없는 데다 내리막 경사가 심해 400야드가 넘는 장타가 쏟아

지는 플랜테이션 골프 코스에서 디샘보의 장타쇼도 기대된다.

디샘보는 작년 이 대회 2라운드에 12번 홀(파4·431야드)에서 티샷 한 번으로 그린에 볼을 올려 큰 화제가 됐다. 그가 친 볼은 무려 414야드를 날아갔다. /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카팔루아 리조트 플랜테이션 골프 코스에서 열린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연습라운드에서 이경훈이 샷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